



시론 02

전일빌딩에 대하여

종합 03

사랑에서 _ 7월
건축사 Q&A
건축사 만평

광주 지역 뉴스 04-05

광주건축사회, 2023년 광주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사생대회 개최
광주건축사회, 제20회 광주건축·도시사진공모전 공모 진행
광주건축사회, 임직원 및 집행부 참여 하계 워크숍 진행

전북 지역 뉴스 06-07

제24회 전라북도 건축상,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우수 건축작품 공모 접수 시작
전라북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 추가모집
전북 군산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전남 지역 뉴스 08-09

전라남도건축사회 2023년 상반기 실무교육 실시
나주 교동 근대고택 전남 제1호 '우수건축자산' 선정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 건축사진 초대전 개최

공모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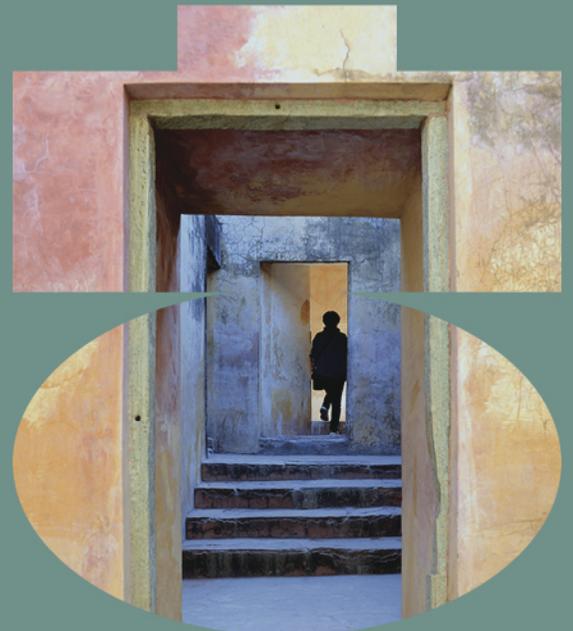
제2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제20회 광주건축·도시 사진공모전
제20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종합뉴스 11

디자인 혁신을 위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대한민국의 건설기술 이제는 해외로 한걸음 더
"한강노을을 시민이 만든다"

독자광장 12

책 소개 _ 더현대 서울 인사이드
한 장의 사진 _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한 편의 시 _ 편백나무 숲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3.07.164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전일빌딩에 대하여



이동희 논설위원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todonghee@hanmail.net

- 1982-1985
영월공업고등학교 건축과
- 1986-1994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1994-1999
오이타대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
- 2000-2002
충주대·세원대·대원과학대 강사
- 2002-2005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 2005-2023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2010-2011
펜실베이니아대학 방문교수
- 2015-2016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2018-2019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2019
한국농촌건축대전 운영위원장
- 2019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집행부위원장
- 2019-2021
고흥군 청년농촌주택조성사업 총괄계획가

유학 생활에서 돌아와 고향 집에 묵혀두었던 물품 상자를 열었을 때, 대학 시절 수첩에서 베어져 나오던 매캐한 냄새를 기억한다. 최루탄... 병역 수행과 외국 생활로 긴 나날을 보냈음에도 소멸하지 않고 봉인되어 있던 그날의 흔적. 당시 대학 정문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보도 한쪽 편에선 총학생회가 주최한 듯한 낮선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다. 일찍이 본 적 없었던 비참한 장면들이 흑백으로 인화되어, 무심히 등교하는 내 눈길을 잡아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광주사태... 내가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발생 후 6년이나 지난 시점. 전시회 전후로 캠퍼스에서 학생 시위가 자주 일어났고, 경찰에 의해 학과 강의실과 연구실이 부서진 것을 계기로 일반 학우들도 보도블록을 깨서 던지게 되었다. 학교 앞의 바리케이드를 뚫고 경찰의 시위 진압용 차량이 최루탄을 쏘며 들어닥칠 때, 우리는 이내 자취방이 있는 골목길 이리저리로 뛰어 들어가 몸을 숨기곤 했는데, 지퍼가 달린 수첩 속의 최루탄 냄새는 틀림없이 그때 배어든 것이다.

얼마 전 5·18민주화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전일빌딩을 대상으로,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가 주최한 건축물 탐방 및 간담회 행사가 열렸다. 해당 건축물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이다. 1968년 처음 건립된 후, 세 차례의 증축과 2020년의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 모습에 이르렀다. 이번 행사는 이 건축물이 2022년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에 기인해 열리게 되었다.

전일빌딩은 신축 후 전남일보 및 전일방송국, 전일출판국 및 전일도서관 그리고 광주일보 등이 입주함으로써, 명실공히 호남 언론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1980년에 일어난 5·18민주화운동 때는 시민군이 계엄군에게 대항한 최대 격전지로서, 내외신 언론사가 주재하며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과정을 보도한 유서 깊은 장소이기도 하다. 당시 헬기 사격 증거로 보이는 탄흔 245개가 발견되고, 도로명 주소로 부여된 번호가 우연히 245인 이유가 겹쳐, 지금은 '전일빌딩245'란 이름으로 불린다.

총별로 대표적인 용도를 살펴보면, 1층은 로비와 전일아카이브, 2~3층은 디지털정보도서관, 4층은 전일생활문화센터, 5~7층은 광주콘텐츠허브, 8~9층은 다목적 강당, 10층은 5·18민주화운동기념관, 그리고 옥상엔 전일마루(전망대)가 조성되어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전체적으로 외관은 예전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지만, 내부는 예전처럼 사무실로 쓰이지 않고 시민문화시설로 사용된다.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건축가회 회원, 리모델링 설계업체, 일반 시민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해, 전문 해설사(docent)의 안내로 1층부터 옥상까지 전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뒤이어 필자가 진행을 맡은 사후 간담회가 열렸다. 여기서는 전일빌딩에 얽힌 의미 깊은 이야기와 앞으로의 건축물 활용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즉, 처음으로 전일빌딩을 설계할 때와 증축을 위해 주변 땅을 사들일 때의 일화,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비참한 상황과 외환 위기 당시의 공실 발생 상황, 주차장 확보를 위해 철거 위기에 내몰렸던 일과 철거 반대를 주장해 보존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몇 년 전 리모델링 당시 부딪혔던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한편, 중학교 시절 전일도서관을 이용할 때 '월권' 입장권을 끊어서 층마다 대기하던 '일권' 소지자들을 비집고 당당히 입장하던 일 등의 개인적 추억을 회고하는 에피소드도 소개되었다.

그중에서 특별히 어느 원로 건축사님의 발언이 생각난다. "전일빌딩은 5·18민주화운동의 성지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너무 역사성이나 상징성만을 부각하지 말고, 현재의 젊은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5·18민주화운동을 알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건대 건축물의 본래 역할은 무엇인가? 아마도 내외부 공간을 사용하는 물리적 측면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문적 측면이 있을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 전일빌딩은 도심 한복판의 교통 결절점에 위치하는 지리적 활용성이 높은 지점이다. 후자와 관련해 해선 두말할 것도 없이 5·18민주화운동의 성지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높은 장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전일빌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역할의 균형 있는 자리매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전일빌딩을 과거의 상처가 투영된 상징적 존재로만 인식해, 외관과 내부 공간을 어둡고 무거운 추모의 분위기로 조성한다면, 건축물은 생명성을 잃게 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강요된 생각과 무리한 교육은 누구나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현재 사람들이 풍요로운 일상생활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과거 사람들의 아픔과 실수가 체험되는 건축물. 그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쓰임새이면 좋겠다.

그래서 5·18민주화운동과 무관했던 다른 지역 사람들도 가볍게 찾아와 이용하면서 지난 광주의 얘기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어느덧 수첩에서는 그날의 최루탄 흔적이 사라졌다.

심재 준불연 EPS 단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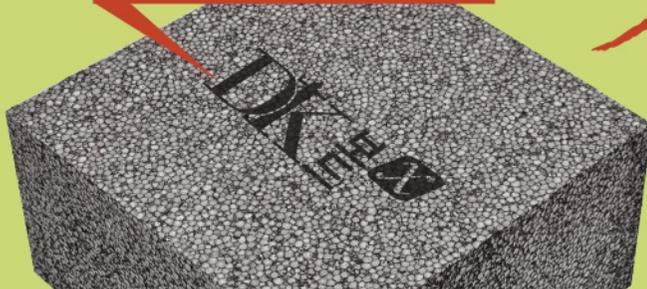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건축 자재
KIRA 2022.6 ~ 2025.5

행명

심재 준불연 EPS 단열재

DK본 X



DK본-X는 10여년에 걸친 준불연 EPS 개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주디케이보드가 심재시험방식으로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2022.2.11)에 맞춰 개발한 심재 준불연 단열재입니다.

열전도율 0.039W/mk 나등급

심재 준불연 DK본 X

검색

DK

주대 광 판 벨
주디케이보드

고객센터 1855-2240

사랑에서 _ 일백세 번째

7월

낮이 짧아지고 있다. 대신 밤이 길어진다. 낮이 연중 가장 긴 시기는 24절기 중 하지(夏至, 6월 21일 또는 22일)다. 하지가 지나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전환점을 돌게 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반의 시작인 7월이다.

7월, 한해의 절반이 지나고 나머지 절반이 달리고 있다. 한 해의 허리가 접혔다고 한다. 이때쯤이면 장대비가 내린다. 들판에는 돌보지 않아서 더 잘 자라는 들꽃들이 대지에 그림을 그린다. 의도적으로 씨를 뿌리지 않고 재배하지 않아도 야생에서 자라는 꽃, 개망초. 군락지를 보며 어떤 이는 은하수로, 흰 구름으로 표현한다.

폭염 속에서 무성히 피어난 들꽃도, 잎새도, 이 한 철이 지나가고 계절의 반이 접히면 꽃들은 시들고, 새파란 잎새도 색동옷을 입기 시작한다. 중년의 머리카락처럼 단풍이 든다.

이렇게 7월을 맞이하며 자연과 인간을 유심히 바라본 시가 있다. 목필균 시인의 '7월'이다.

//한 해의 허리가 접힌 채/돌아선 반환점에//무리 지어 핀 개망초//한 해의 궤도를 순환하는/레이에 깔린 절반의 날들/시간의 음소까지 조각난 눈물/장대비로 내린다//계절의 반도 접힌다//폭염 속으로 무성하게/피어난 잎새도 기울면/중년의 머리카락처럼/단풍 들겠지//무성한 잎새로도/견딜 수 없는 햇살/꺾겨 접힌 마음 한 자락/폭우 속으로 쓸려간다//

한 해의 허리가 접혔다. 올해도 절반이 지난 것인가. 아니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 금년 계획을 다시 되돌아본다. 내가 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했는가. 어디쯤 와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깊은 생각 없이 눈앞의 일만, 발등의 불만 끄는 행동을 하면서 허둥대는 것은 아닌지. 그냥 하루, 한 주, 한 달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되돌아본다.

잠시나마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희망을 걸어도 되지 않을까. 스스로 위안을 하고, 칭찬도 해 본다. 그래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될 거야. 나에게 격려하는 마음 챙김의 시간을 가지며 아직도 절반이나 남은 올 한 해를 잘 걸어갈 희망한다.

인생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공원이나 노인시설에서 이것저것 소일거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하루해가 길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노년에도 다양한 활동과 취미 생활을 하는 분들은 하루, 한 주가 빠르게 간다고 한다. 세월의 속도가 늦고, 빠름은 자기 자신이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세상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로 느끼는 것이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다 안다.

7월, 올 한 해가 절반이나 지난 것인지 아직도 절반이나 남은 것인지, 상황은 같지만 생각의 차이다. 자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인생의 속도가 빠르든, 그만큼의 여유와 만족감을 향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인생은 짧다. 7월, 나는 살아 있고, 아직도 올 한 해가 절반이나 남아 있기에 오늘도 감사하다.

자문위원 _ 박홍근 건축사(aaforyou@nate.com)

건축사 Q&A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이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로 기부채납' 조건을 부과받은 경우가 있다.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도로를 개설할 수 있고, '토지수용권'을 부여받는다.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공공성'이 인정된 기반시설을 개설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공공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차이점

- 공공시설 : 원칙적으로 설치주체와 관리주체가 누구인가에 초점
- 도시계획시설 : 입지타당성에 대한 계획적 검토, 토지수용을 허용할 만한 공공성이 있느냐에 대한 검토절차를 통해 행정청이 대외적으로 공공성을 부여해 주는 행위 자체에 초점

• 공공성만 따진다면 '기반시설'로만 관리해도 될 텐데 '도시계획시설'을 별도로 둔 이유

- 입지적정 여부에 관해 공적인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까다롭게 검토하는 점
- 도시군관리계획에 종속되는 先 계획인 점
-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 이행으로 쉽게 다른 용도로 바꾸기도 어렵다는 점

• 골프장이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

- 도시계획과 관련한 현재 결정례 "2008헌바 166, 2011.6.30.(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종류와 범위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적시

신재욱(광주광역시 친수공간과장. 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학 박사. 건축사)

건축사 만평



김선재 건축사 작
뉴텍 건축사사무소(광주)/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작품설명 :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주택의 공급과잉에 따른 아파트가 빈집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관리문제 및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려보았다.
빈공간들이 새들이나 동물의 거주지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 임태형
 부편집인 :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 박홍근,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전담기자 : 김종문
 논설위원 :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화, 임용훈
 등록번호 :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 월간
 등록일자 : 2010-01-25
 편집및인쇄 :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영천 삼 형제 집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광주 서구 풍곡로 61, 3층
 Tel. 062-676-2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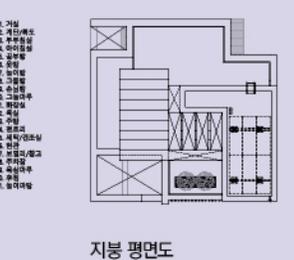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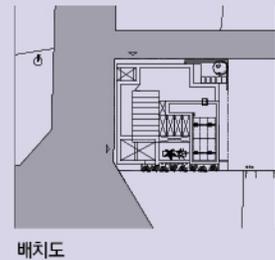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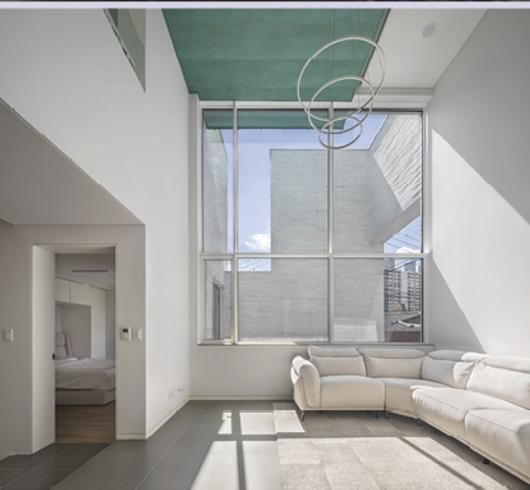
대지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동 / 대지면적 : 147.00㎡ / 건축면적 : 86.30㎡ / 연면적 : 198.16㎡ / 건폐율 : 58.71%
 용적률 : 134.80% / 규모 : 지상 4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롱브리타일, 부식동판, 알루미늄루버 등 / 건축사진 : 윤준환

“ 집의 근간이 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결정 논리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놀고 학습하며 성장기의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집을 짓기엔 땅의 면적이 146 제곱미터(44평)로 너무 좁았다. 공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했다. 구분은 하되 병합할 수 있고, 규정하되 변화할 수 있는 특징들을 담아내야 했다. 이에 '순환과 연결'이라는 구성 논리로 집의 근간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평면설계 시 계단을 중앙에 배치하였다. 계단의 상부에 설치된 통창은 옥상과 내부의 풍경을 연결하고 실내 깊이까지 햇빛을 유입하여 밝은 실내공간을 연출한다.

1층을 비워내 자가 주차장을 만들어 도로의 안전성과 개방감 높이기, 깊이감 있는 벽의 형성으로 인접 주택과의 시선 분리하기 등 매우 실리적인 측면에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옥상에 설치되어 그늘을 만들어내는 사각형의 튜브 공간은 에머랄드 빛깔의 외부 마감 면이 거실 반자 영역으로 관입하며 순환의 개념을 시각적 영역으로까지 확장 시킨다. 정제된 마을 경관에는 전에 없던 색감을 더 함으로써 활력을 더하고자 하였다.



(주)신화기술

건축인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및 지구단위 계획 업무일체

공동주택 및 택지사업에 따른 인허가 용역 업무일체

문의전화 : 061-334-8836

광주건축사회, 2023년 광주건축·도시그림그리기사생대회 개최 8월 5일 대회 개최, 참가접수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광주건축사회는 2023년 광주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5일 광주광역시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광주지역 소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참가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참가신청 접수는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www.gjkira.kira.or.kr) 공지사항 238534번에서 참가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로 회신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대회 경연 방법은 각자 가져온 그림재료를 이용하여(크레파스, 물감, 붓 등 화구 개인지침) 배부되는 도화지에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이번 사생대회에서는 초등 부문 최고상에 광주교육감상이 상금과 함께 시상되고, 기타 입상 부문에도 단체회장이 상금과 함께 시상될 예정임에 따라 많은 어린이들의 참가가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광주건축사회, 제20회 광주건축·도시사진공모전 공모 진행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일반사진, 모바일사진 작품 접수...

광주건축사회는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20회 광주건축·도시사진공모전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 작품 공모주제는 건축·도시·공간의 여행(부제 : 자신만의 의미 있는 장소)로 일반사진과 모바일사진으로 구분하여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총상금 385만 원으로 등록비는 없으며 1인 2작품 이내로 일반사진은 11×14인치(약 27.94cm×35.56cm) 사이즈 사진과 모바일사진은 8×10인치(약 20.32cm×25.4cm) 이상 사이즈 사진을 출력하여 참가신청서와 함께 방문 및 우편접수(광주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하면 된다.

참가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건축사회, 임직원 및 집행부 참여 하계 워크숍 진행

6월 23일 전남 목포에서... 역대 회장 및 대의원, 위원회 위원장 등 45명 참가



광주건축사회 임직원과 집행부가 참여하는 2023년 임원 하계워크숍이 지난 6월 23일 전남 목포시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 45명이 참가했으며 목포 유달산케이블카와 목포근대역사관을 투어 및 관람했다.

정인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하계 워크숍을 통해 건축사의 역량을 하나로 하여 광주건축사회를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한국건축가협회, 회원 대상으로 안전설계위원회 세미나 개최

7월 6일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전당원에서...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이순미)는 7월 6일 광주 동구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전당원에서 안전설계위원회DFS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세미나는 안전설계 국내·외 제도에 대한 설명, 설계사 안전설계 도입 과정과 도입 후 변화, 시공사 안전설계, 2022년도 안전설계위원회 주요활동 및 성과물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순미 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안전설계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나가자"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건축도시설계, 공학전공 졸업작품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영명홀에서 진행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2023년 졸업작품전이 6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영명홀에서 진행되었다. 졸업을 앞둔 예비 졸업생 47명, 그 외 초청인사 광주건축사회(정인재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이순미 회장),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석하였다.

광주역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2023년 광주역 도시재생 주민제안 2차 공모사업 10일부터 28일까지 모집



광주광역시 '2023년 광주역 도시재생 주민제안 2차 공모사업' 참여자를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역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광주역 도시재생 권역 내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한다.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역 일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콘텐츠 사업 발굴,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4,500만 원으로, 공동체 활성화·공간조성 프로그램 등 사업당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역 사업권역 내 거주자로 3인 이상 구성된 주민 모임이나 광주시민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이면 가능하며 공모·접수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공고문 또는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gjghc)를 확인하거나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070-7729-11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 회원동정

•입회

- 임종수 건축사 / 바우하우스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206동 109호
- 서수열 건축사 / (주)유타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시청로 92, 201호
- 장지혜 건축사 / 슬지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제봉로138번길 9
- 양규중 건축사 / 서현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저불로 18-4
- 나예진 건축사 / 디엔에이(DNA)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동명용산로12-11, 2층 201호
- 강만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테라 / 광주 남구 서문대로402번길 37, 1층
- 오현진 건축사 / 현진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A동 1208호

•변경(소재지)

- 김광천 건축사 / 라김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17-29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역기조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침하지반보강/복원
EcoSM 지반개량
마이크로파일
팽이초공법
로타리파일(헬리컬)
강관압입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자전거 탄 갤러리

홍지숙 건축사 / 홍지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178, 201호
Tel. 063-255-1105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7-17 외 1필지 / 대지면적 : 1,020㎡ / 건축면적 : 203.75㎡ / 연면적 : 548.8㎡ / 규모 : 지상 3층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1가구)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노출콘크리트+점토벽돌 + 대리석+목재패널

제24회 전라북도 건축상,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우수 건축작품 공모 접수 시작
사용승인 된 전라북도 소재 건축물, 건축드로잉·사진 모집대상

2023년 제24회 전라북도 건축상 작품모집이 시작됐다. 작품접수는 전라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응모신청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10월 4일부터 5일까지 현장접수는 전라북도청(공연장 1층 전시실), 우편접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8층 주택과)로 하면 된다. 마감 후에는 건축사, 대학교수, 건축직 공무원 등 건축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 부문은 사회공공 부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민간 부문(주거·비주거·한옥) 대상 1점, 분야별 금상, 은상, 동상을 각 1점씩 선정한다.

공모에서 입상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시공자에게는 상장, 건축주는 동판이 전달될 예정이다. 건축상 입상 작품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라북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제2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막식'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 추가모집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건축 시 최대 5천만 원 지원

전라북도가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참여 희망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12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앞서 1차로 4동을 선정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전북 지역 내 전통 한옥 계승 및 활용을 위해 고품격·

친환경 주거 형태인 전통한옥을 보급하는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도내에서 한옥 주택 신축 시 최대 5천만 원,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내 한옥을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 신축(개·재축 포함)할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융자금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시·군 한옥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추후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전북 군산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누구나 신청 가능

군산시는 6월 20일부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다. 신청은 시 및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며, 기간은 최초 2년이다. 기간은 2회 연장해 6년까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주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는 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



전문소방 시설설계업 / 전문1종 설계업 / T.A.B 인증업체
종합 감리업 / 전문소방 공사감리업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정보통신, 기계설비)
전기통신 소방공사업 / 소방시설 관리업 / 톨코 전남총판 소방 내진자재

주식회사 한길이앤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51
T. 061-333-7119, 334-7119
F. 061-333-6119





도심 속에 흩어져 있던 삶의 공간(House)과 삶의 터전(Office, Atelier)을 하나씩 하나씩 시나브로 전원 속으로 중첩시킨 프로젝트이다. 성격이 다른 3가지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된 건폐율로 인해 어렵게 천천히 그리고 적절히 공존시켰다.

사업부지에 명확히 드러나는 2개의 축(도로, 향)을 활용하여 층별로 중첩시켰고 삶의 공간(House)을 삶의 터전(Office, Atelier)으로 떠받들어 지탱하게 하여 가정이란 공간을 건축적으로 재해석하여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킨 건축물이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입주자는 계약 기간을 갱신하는 재계약,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 계약은 물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채권양도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라북도 전주시, 정원문화 거점 '전주정원문화센터' 조성 완료

27억 원을 들여 완산구 중산공원에 지상 2층, 전체 건물면적 1천260㎡ 규모



출처 : 전주시 제공

전주시는 중화산동 중산공원의 기존 작은도서관 건물을 증축해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대중화를 이끌 거점시설로 만드는 '전주정원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시민들에게 정원 관련 교육부터 정보제공, 휴식, 실습 체험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아열대식물원과 정원도서관, 식물병원 및 정원소품 전시(판매)장, 강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곳에는 산림청이 공모한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사업을 통해 9억 원을 들여 이 공원에 자리한 작은도서관 건물을 증축해 295㎡ 크기로 실내 정원을 조성하였다.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푸르른 정원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코코스야자와 워싱턴야자, 부채야자 등 110종 1천400여 그루의 다양한 아열대 식물과 벽천분수, 정원과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전주시는 전주정원문화센터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다양한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해 전주시가 정원문화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북도, 전국 최초로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

2023년도 자율과제 사업비 총 64억 원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자율과제를 8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라북도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RIS 사업비의 15% 이내에서 지역 현실에 맞는 자율과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그 수요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자율과제 사업비는 총 64억 원으로 사업에 따라 1~3억 원 내외로 지원하며 RIS 지방비 부담 여부에 따라 추가 및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과제 공모 분야는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사회 활성화로 나뉜다. 지역 현안 해결은 지속가능한 활력사회, 걱정없는 안심사회, 더불어 사는 어울림 사회 등 시·군 현안 해결에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 활성화는 취·창업 육성,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활성화 등 청년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다.

사업 응모를 위해서는 시·군과 도내 대학과 협업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시·군은 과제당 동일 대학 또는 다른 대학과 컨소시엄이 가능하고 대학은 여러 시·군과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평가 일정은 8월 중에 사업계획서 서면 평가를 실시하고 8월 25일(예정)에 발표 평가와 질의응답을 통해 8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김제시, 도시재생 중심거점시설 착공

요촌동, 성산지구... 2024년까지 공사 완공 목표



출처 : 김제시 제공

김제시는 요촌동 및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요촌동, 옥산동 일원에 도시재생 중심 거점시설 건립사업을 본격 착공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하는 도시재생사업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김제시와 전북개발공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약 1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4년까지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중심거점시설은 총 4개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요촌동 3개소(복합 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시니어 커뮤니티센터, 지평선어울림문화광장), 성산지구 1개소(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에 건립하여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빈 점포가 증가하는 등 공동화 현상으로 쇠퇴해 가는 구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재생거점이 될 전망이다.

전북 회원동정

•입회

- 조정호 건축사 / (유)원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전북 남원시 동림로 29, 301호
- 장동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디오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2, 203호
- 이종래 건축사 / (유)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서부로 16, 2층

•변경

- 장동석 건축사 / 다빈치 건축사사무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7, 2층

•부고

- 장종우 건축사 / (주)장인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7월 04일(화)

전라남도건축사회 2023년 상반기 실무교육 실시

지난 6월 28일 무안과 7월 5일 순천에서... 전문교육 강연 열어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6월 28일 2023년 상반기 건축사 실무교육(전문교육)을 진행했다. 먼저 6월 28일 무안군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기후변화와 생태도시 조성방향'이란 주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현수 박사와 '건축과 정원' 주제로 전남대 조경학과 조동범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다.

7월 5일에는 전남 순천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건축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일한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편, 전남건축사회는 9월이나 10월경에 전문교육 인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 교동 근대고택 전남 제1호 '우수건축자산' 선정

동서양 건축양식 도입... 예술·역사·사회문화적 가치 높아



출처 : 전라남도청 제공

전라남도는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우수건축자산 제1호 명칭을 소유자와 협의해 '나주 교동 근대고택'으로 했다.

'나주 교동 근대고택'은 한국·일본·서양 양식을 모두 지닌 절충형 주택 3개 동으로 1939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채와 행랑채, 대문채로 구성된 전통 한옥의 배치 기법이 사용됐다. 일본풍의 지붕 형식과 공간 구성으로 일식 주택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서양의 방갈로 양식도 적절하게 도입됐다.

울미의병(1896년)으로 활동했던 난파 정석진(1851~1896)의 손자인 정덕중이 그의 어머니를 위해 지은 주택으로 정덕중은 해남군수를 지내기도 했다. 당대 전남

유일의 건축사였던 박영만이 설계하고 김영창 대목수가 시공했다.

전남도건축위원회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기준인 예술적·역사적·경관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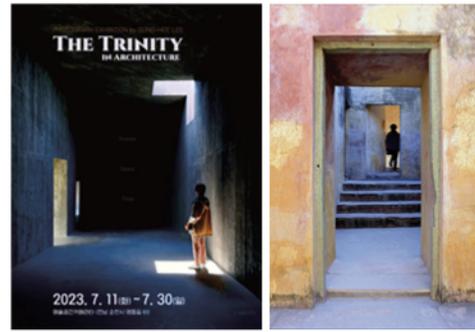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 비용 일부를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건폐율, 조경, 부설주차장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해 관계 법령의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은 2015년부터 시행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자산의 체계적 조성 관리에 위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가 등록한다.

전남도는 "제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건축자산 관련 제도 활성화 시작으로 보고 지역 건축문화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 건축사진 초대전 개최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순천 '예술공간 카메라타'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가 국내외 건축물을 찾아다니며 건축학자의 시선으로 포착한 '인간, 공간, 시간'이 조화롭게 합체된 작품 약 20점을 선보인다.

사진전은 '건축 삼위일체(The Trinity in Architecture)'라는 주제로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순천시 영동 문화의 거리에 있는 '예술공간 카메라타'에서 열린다.

끝으로 이동희 교수는 사진전을 통해 '건축이 단순한 물리적 덩어리가 아닌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술적인 창조물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여수 예술마루, 코리아 유니크베뉴 '전남도 유일' 선정

친환경적인 요소, 회의, 전시 기반시설 등 높은 평가



여수시는 GS칼텍스 예술마루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코리아 유니크베뉴 15개소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에서는 여수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코리아 유니크베뉴는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갖고 오래 기억

광양불고기 전문점 "그러소"

이학호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초석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84, 2층
Tel. 061-761-0088



대지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807-1번지 / 대지면적 : 649.10㎡ / 건축면적 : 385.33㎡ / 연면적 : 899.46㎡
건폐율 : 59.36% / 용적율 : 138.57%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골구조 / 주요마감 : 스토어마감, 모노타일마감, 징크마감

될 독특한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는 마이스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 명소를 뜻한다.

2020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코리아 유니크베뉴 신규 지정 공모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제 마이스행사 개최가 가능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역량을 갖춘 장소를 대상으로 올해 코리아 유니크베뉴로 최종 15개소를 선정했다.

GS칼텍스 예울마루는 3년간 코리아 유니크베뉴의 자격을 부여받고, 기존에 선정된 37개소와 올해 15개소, 총 52개소의 코리아 유니크베뉴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마이스행사 개최 장소로 해외에 홍보될 예정이다.

고흥군, '내가 상상하는, 만들고 싶은 놀이터' 디자인

올해 7월부터 고흥동초등학교와 함께 어린이 도시재생대학 디자인단 추진



출처: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하나인 상상놀이터 디자인 및 제작·설치 제안서 평가에서 우선 순위로 선정된 회사와 7월 6일 협상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내가 상상하는, 만들고 싶은 놀이터'라는 주제로 어린이 도시재생대학 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번 프로젝트 주안점은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직접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시각으로 기발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도출하여 아이와 어른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간을 구상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도시재생대학 디자인단 운영 및 놀이터 제작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 운영을 2개월 거친 후 2024년 2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라남도 여수 울촌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2029년 '미래형 복합신도시 울촌 테크노밸리' 준공 예정

전라남도 여수 울촌 지구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울촌면 산수리, 월산리, 조화리를 2026년 7월까지 3년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여수시의 울촌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토지 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허가 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 여수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

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촌 지구는 사업비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주거, 산업, 물류 공공 시설 등 복합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남문화재단·전남건축사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전남문화재단과 전남건축사회는 6일 전남문화재단 문화마당에서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수목비엔날레 홍보와 관람객 유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근식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장, 한형민 전남

도건축사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수목비엔날레 홍보, 단체관람 협조, 홍보물 지원, 관람 편의 제공에 협력하게 된다.

전남건축사회는 1965년 설립해 12개 지역건축사회와 387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건축사업 자문, 건축물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사회공헌활동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협약식에서 한형민 회장은 "대규모 국제행사인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지역 문화 발전을 이끌길 희망한다"며 "소속 건축사와 직원들이 많이 관람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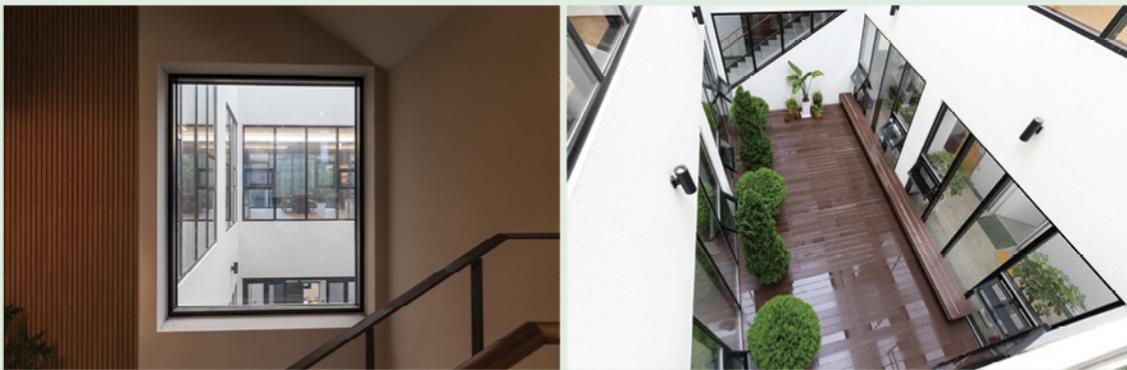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송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세계적 수준의 10개국 160여 명의 유명 작가가 참여한다. 종이, 비단 등에 붓, 먹, 채색 등의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는 수목과 첨단 기술의 미디어아트를 활용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제수목비엔날레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목의 본향인 목포와 진도 등 전남 곳곳에서 개최된다.

전남 회원동성

•변경(소재지)

- 박종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원 / 전남 여수시 웅천남5로 29, 4층
- 박진영 건축사 / 에이앤드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동명초등길 35-33
- 박미라 건축사 / GA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동명초등길 3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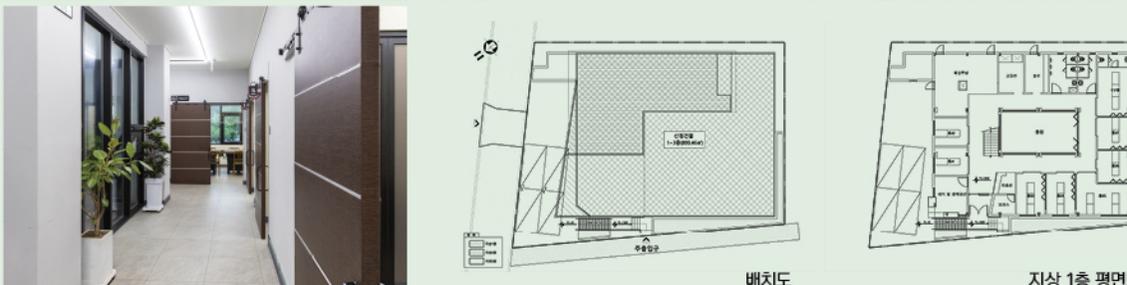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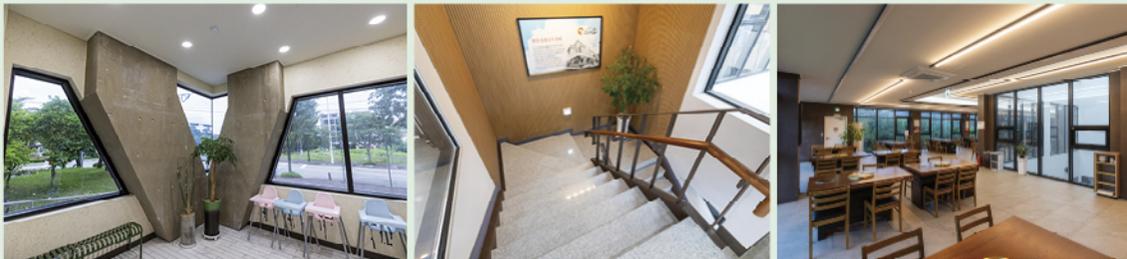


P씨 구산리 상가주택은 광양 서천변 인근에 위치한 불고기전문점으로 부부가 거주(3층-단독주택)하며 생업(1.2층-일반음식점)을 이어 나가는 공간이다.

건축주 요구사항에 맞게 최대 건축면적 내에서, 안팎으로의 시원한 조망이 가능하게 계획되었다.

대지는 북측으로 25m 도로, 서측으로 완충녹지와 4m 보행통로에 접해 열린 조망이 가능했다. 남측 인접대지 역시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 시원한 뷰가 인상적이었다. 조망축을 따라 방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었고, 프라이버시를 위해 주거공간은 반대편에 배치되었다. 간결한 동선을 위해 보행통로에서부터 2층까지 연속된 수직동선을 계획하였고, 개방감을 주기 위해 중정을 두었다. 환기를 요하는 고깃집 특성상 기능상으로도 적절했다.

매스는 기단부를 분리하여 상부는 도로측에 맞게 틀어 안정감을 주었다. 오랜 광양불고기의 상징성을 위해 정면부에 "소의 뿔"을 형상화하였고, 지붕은 "한옥"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었다.



배치도

지상 1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지상 3층 평면도

디자인 혁신을 위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7월 3일부터 공모참가 등록... 10월 31일까지 작품접수



대한민국 디자인 품질 혁신을 위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의 참가 접수가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창의적인 디자인뿐 아니라 스마트·친환경 기술 적용,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확충, 건축기준 상향 등으로 혁신적인 품질에 초점을 뒀다.

공공주택이 본격 공급이 되는 만큼 젊은 사람들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전화되도록 건축사들에게 수준 높은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형평성을 위해 (안산장상A6, 인천경서B2)는 신진·소형 건축사 참여 확대를 하여 계획설계 분리 공모를 적용한다.

10월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10월 말에 당선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사업대상지 공모 당선작에 대해 대국민선호도조사(온라인 국민투표, www.khousing.org, 11월 26일)을 실시해 최종 우수작품을 선정(3개 이내)하며, 오는 12월에 시상식이 열린다.

대한민국의 건설기술 이제는 해외로 한 걸음 더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를 통한 건설통합정보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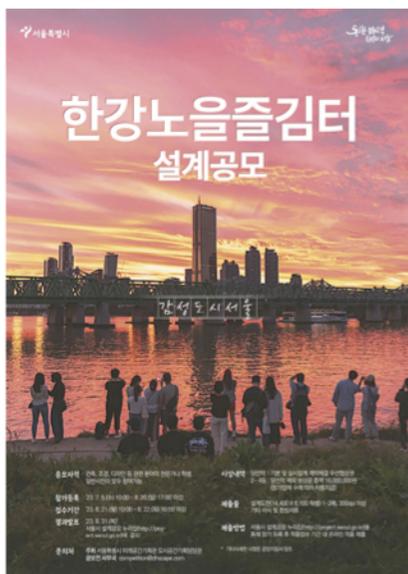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해 온 해외 시장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3월부터 임시 개통하여 6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며 시스템을 점검해 왔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은 해외건설 관련 기관들이 분산·중복적으로 제공하던 해외건설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연계하고, 발주·입찰 등 사업정보, 시장정보, 조세정보, 진출전략 등 해외건설 수주를 위하여 필수적인 국가별 진출환경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해외건설업 분야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하여 구인 및 구직정보 등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 제공으로 일자리 매칭도 지원한다.

“한강노을을 시민이 만든다”

노을과 즐기는 색다른 한강... 한강노을즐김터 설계공모 추진



설계공모 포스터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조성을 위해 7월 5일(수)부터 8월 22일(화)까지 한강노을즐김터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계공모는 지난해 시민 사진공모전 수상자를 비롯한 일반시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이 발굴한 명소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작품을 직접 선정하는 시민참여형 공모로 진행된다. 이는 시민의 목소리와 취향을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매력 있는 한강을 만들기 위한 의미가 있다.

공모전에 응모하려면 노을명소 20개소 중 ‘신설’ 분야 1개소 또는 ‘재구성’ 분야 3개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한강의

감성과 매력을 살린 노을 즐기 명소의 공간 계획안과 함께 스토리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는 건축, 조경, 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생, 일반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참가 등록과 작품 제출은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https://project.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2030년까지 건설사업의 디지털화”

디지털 기반 공공건설정보 정책 로드맵 마련예정...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9조에 의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기본계획(6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예전부터 건설사업 정보화가 진행되었으나 공공의 보유정보를 민간으로 개방하고 건설현장에 행정 자동화를 고도화하기 위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차 기본계획 내용으로는 공공·민간이 생산하는 건설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활용하는 BIM(건설정보모델링) 활용을 위한 상호 운용성을 확보, 건설행정 업무를 디지털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하여 간소화 추진하여 기존 종이서류는 디지털 정보(Paperless)로 전환,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효율성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셋으로 3개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

전국 최초로 디자인향상 프로세스 도입...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건축물 디자인 향상 방안의 하나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을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은 획일적이고 특색 없는 ‘성남급 아파트’ 광주 도심주택을 독창적이고 다양한 디자인과 개성 넘치는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600세대 이상 중대형 주택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프로세스를 통해 특화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은 통합심의를 적용하여 운영, 규정에 따라 건축·경관·교통·개발행위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디자인 향상 프로세스는 설계공모, 디자인 특화 등으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공동주택 디자인지원단’이 도시경관 향상, 디자인우수, 공공적 측면에서의 가치증대 등을 지원하고 심의위원 검토를 거쳐 통합심의공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주택 디자인지원단’은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을 단장으로, 광주시 총괄건축가, 도시계획·건축·경관위원회 위원장(위원장이 당연직인 경우 부위원장), 교통·환경·녹지분야 전문가, 관련기관 및 협회 추천 전문가, 도시디자인 또는 도시마케팅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2명으로 구성·운영된다.

‘건축문화사랑 신문’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원 작품 모집 안내

- 출품자격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원이면 누구나
- 출 품 료 : 없음
- 모집기간 : 상시
- 작품구분 : 준공 작품
- 소개지면 : 광주·전남·전북 지역 지면 회원작품 소개코너
- 제출자료 : 작품사진 JPG 파일 및 치수선 없는 도면 PDF, 설계개요 및 개념 한글파일, PDF 등
- 제출방법 : 광주건축사회 이메일(gjkira@empas.com)
- 문 의 : 건축문화사랑 신문 담당자 Tel. 062-521-0026

이광원 &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 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광주 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지원단 ‘젠트리닥터’ 위원
-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단원

변호사 조 선 희

- 전남 강진 출생
- 영암여자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자문위원

광주 동구 동명로 107, 402호 T. 062)234-7417 F. 062)234-7418 E. law7417@daum.net

책 소개 _ 진다엘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더현대 서울 인사이트

김난도, 최지혜, 이수진, 이향은 저 / 다산북스 / 2023. 07. 10.

이 책은 4명의 교수 및 연구원(김난도, 최지혜, 이수진, 이향은)으로 구성되어 저서 되었다. 서문에 등장하는 가장 큰 타이틀은 “오직 트렌디한 것이 살아남는다.”이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의 삶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게 되어 공간의 온라인화가 되는 것에 있어 어떠한 공간이 사람들이 찾게 되고 가슴이 설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트렌디’란 것이 건축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준다.



이 책의 구성은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총 다섯 개의 메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프롤로그에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주제로 시작하며, 책의 제목처럼 ‘더현대 서울’ 백화점을 사례로 공간의 변화에 대한 독특한 정체성을 소개한다. 메인 5개의 파트는 ‘더현대 서울’의 구체적인 성공 요소들을 정리하여 풀어내고 있다.

첫 번째 주제는 현대 시대에 맞춰 공간에 따른 개인이 자신의 공간이라고 느끼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공간이 될 것인가”에 따른 아이덴티티에 대해 풀어나가고 있다. 그에 따른 아이덴티티 설정을 위한 성공 타깃인 MZ 세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는 구체적인 더현대 서울의 공간적인 디자인을 외관과 인테리어, 구조와 공간기획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더현대 서울의 메인 공간인 중심광장과 사운드 포레스트 등의 다양한 공간적인 요소가 사람들에게 주는 효과 등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세 번째 주제는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머천다이징’, 즉 공간이나 디지털 플랫폼 속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이나 행위 등에 대해서 MZ 세대를 대상으로 더현대 서울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다.

네 번째 주제는 단순히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상업 공간이 아닌 타깃의 시간을 뺏을 수 있으며 다양한 취향을 제안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설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공간에 기술을 더하여 효과를 증대시키는 리테일테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의 편의성을 오프라인에 녹여내는 융합을 핵심으로 더현대 서울 무인매장의 공간 구현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건축에 있어 공간이란 무엇인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간이란 매개체가 어떠한 기술과 마케팅 효과, 시각적 효과와 접목하여 구성됨에 따라 기존과 다른 새로운 공간이 탄생한다는 것을 ‘더현대 서울’을 메인 사례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거쳐 가며 이전과는 다른 성향을 지니고 사고를 하게 된 새로운 MZ 세대들을 타깃으로 한 주제를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 건축과 연결하여 새로운 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다. 내가 설계하는 공간이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설계해 보았으면 한다.

한 장의 사진



이동희 교수 작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 / 2023년 4월 1일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편백나무 숲

오늘의 여름 되어
숲속 편백나무 바라보니
높은 하늘 이겨낼 듯
숫구치는 장대함

쭈뼛 뻗은 그 기상
누군들 범접하라
산새들 불러 보아

푸르름을 자랑하니
하루하루 근심 걱정 없이
갈게 뻗은 가지로
간지럼 태우네

인간은 눈만 뜨면
하루의 삶을 걱정하고
오늘 뭘 먹을까 염려하지만

매미소리 들으며
산새들 노래 춤추고
비 내리는 날에는
쌀인 먼지 털어 내고
탐욕의 인간 앞에서
마음 비우고 살라 하네.



濟堂 추원호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The 큰 믿음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ES빔
철골공법**
Economic Steel Beam

구조설계 무상지원

- 2022년 매출액 : 260억원(시평액 : 123억원)
- 고층빌딩, 물류창고, 주차장, 공장 등 다양한 시공 실적 보유
- 공장 내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

ES빔 철골구조

단처부위를 설비배관 통로로 사용하여 층고가 낮아짐
(천정고는 높아짐)

일반 철골구조

설비배관 설치로 층고가 높아짐
(천정고는 낮아짐)

ES빔 철골공법 특징

철골공사 15~45% 평가절감

내부기둥을 최소한 획기적인 철골공법

시공성 용이

공시기간 단축

구조/설계/시공의 기술인력/인사보유 (15명/20명/20명)

The 큰 믿음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대표이사 김대곤

본사·공장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예곡산단5로 39
광주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사업화 4동 204호
TEL. 061.818.1700 FAX. 061.818.1701
H.P. 010.5517.5704 E-mail. esbeam@daum.net